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갈 이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15장(하나님의 크신사랑).....	다 갈 이
※ 교 독 문5(시편8편).....	다 갈 이
※ 신앙고백(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90장(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갈 이
예배기도 1부 김애경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해 같이 빛나리”.....	다 갈 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정에 평안과 소망을 주옵소서. *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료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마가복음10:42-45	김혜경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섬김의 사역에 함께 하십시오 ”	
기 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311장(내 너를 위하여).....	다 갈 이
봉 헌(새신자들봉팀).....	다 갈 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께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김영란집사	본 문 / 베드로전서 4:12-19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딤편전3:1-16	호세아서강해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금요기도회	
*베드로목회7프레임 / 4.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목회	축 도 / 최세열목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주기도문 / 다같이	금요일 오후 9시	합심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 음 주 기 도	1부	박기환집사
	헌금위원	2월 정정희 정숙자 김병국 천사라	다 음 주 성경봉독	2부	마리아회
		3월 박기환 임병호 정선례 방옥남		1부	말 은 이
	식당봉사	금주 마르다A 다음주 마르다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2부	마리아회
헌신찬양	금주 새신자들봉팀	다음주	마리아회		

섬김의 사역에 함께 하십시오 / 마가복음 10:42-45

“평신도 사역자와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교회의 표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신도 사역자들도 목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목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섬김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으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자신의 인생목표가 “섬김과 대속”의 삶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45절).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 바른 섬김의 자세는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른 섬김의 자세는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집사)가 되어야 하고, 종(노예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겨주는 자의 수에 따라 높음을 결정하지만,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에 의해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눅17:10).

2. 섬김은 가장 고상한 삶의 목적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 섬기는 자세로 활용할 때 비로소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섬김을 받는 자는 미숙한 자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45). 주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생의 목적이고, 그 한계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고상하신 주님의 삶의 목적이 섬김이라면, 섬김은 인생의 가장 고상한 목적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고상한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갈5:13)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에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을 알아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섬긴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직분자들이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종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3.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13:14,17절에서 주님은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고 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섬김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 갑니다. 섬김에 합당한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마10:40-42). 자신의 물질, 재능, 건강, 시간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룩한 의식생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것이 살아감의 의미이며, 더없이 존귀한 가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격, 감사, 기쁨으로 자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섬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맛을 지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현절 다섯째 주(2월 9일)

제 7 과 너는 기도할 때에

(함께 읽을 말씀 : 에스더4:15-17, 데살로니가전서5:16-18절)

말씀묵상

1.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골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골방은 무엇보다 위선자의 기도처와 대비되는 곳입니다. 본문 앞의 5절에서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선자'라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연극배우'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위선자란 연극을 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연기하는 사람이지요. 배우는 무대에 섭니다. 무대 앞에는 관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의 연기는 관객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울리고 웃기지요. 연기가 끝나면 관객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의 연기는 끝납니다. 무대 위의 그 사람과 무대 아래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위와 아래가 다른 사람,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2.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인기도 높아지고 출연료도 치솟게 됩니다. 어디 배우뿐인가요? 요즘은 정치인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표현하려 애씁니다. 사업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 바야흐로 연출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에서도 시대적 연출이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성공하고 싶은가요? 무대 연출에 성공하십시오.

일찍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을 연출로 살려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거룩하게 서 있던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가 사라졌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보다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기도문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도문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할 시간을 정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기도로 채우게 했습니다. 성전 제물을 올리는 시간이었던 오후 3시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것을 멈추고 서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세와 장소도 정했습니다. 회당에 모여 기도하고, 큰 길 모퉁이와 대문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르며 격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하여 마침내 바리새파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유대 민족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연출, 훌륭한 연기, 그리고 성공?!

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셨습니다. 골방, 거기에는 잘 꾸며진 무대가 없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대본도 세련된 연출도 없습니다. 판에 박힌 어설픈 연기도 관객을 자빠트리는 천박한 배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로 서야 하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도 다만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 말입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2. 다음주일은 평신도참여예배로서 마리아회가 함께 합니다. 마리아회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2월 14일과 15일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 박세일집사, 이경훈전도사)..
4.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15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5. 청년회 동계수련회가 21일과 22일에 있습니다(담당:김기수집사).
6. 안수집사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7. 교회수첩이 준비되었습니다. 한부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 화번호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교우소식
-이용훈집사(김영숙집사)님의 차남 이진구 군의 결혼예식이 2월 15일 오후1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1층 예식홀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온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김동현 서영자 김기수 신혜영 박지영 김승호 신공님 노순영 박상귀 공영순 양희임 이완수 김봉순 김예진
- 감사헌금 : 박경자 최임춘 김범진 서영자 김지환 김동현 김홍영 김현아 강소윤 이완수 김봉순 안복선 강항구 류종란 주종임 이종춘 심문자 송순옥 이인희 박정미 강경원 한국회 강푸른 무명3 (생일) 김울건 김대영 (심방) 정숙자 (일천번제)김동현
- 건축헌금 : 심승기 강동균 김현아 박상귀 공영순 에스더 마르다 노순영 이유자 김태현 강지선
- 비전씨앗 : 배영인 강항구 류종란 강동균 김현아 김울건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하나님은 아신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분 가운데 성채, 천국의 열쇠등을 쓴 A.J.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 촌에는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아 이 오지로 온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오지에서도 아무 불평없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기쁜지 늘 웃으며 찬양하며 정성으로 환자를 간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진료가 끝나도 제일 늦은 시각까지 남아 환자를 돌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크로닌 박사가 하도 보기에 안스러워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그걸 자신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터 인데 말이에요”

그때 뜻 밖에 이 간호사 자매는 크로닌 박사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이 크로닌 박사의 일생을 바꾸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된 것 아닌가요. 박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섬김

유명한 아씨의 성자 프랜시스는 이런 고백을 남겼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누려보는 삶을 나는 살아 보았다. 거기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기고 섬길 때 이 삶은 나에게 송고한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 “섬김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행동하는 의지(Will)와 수고(Working)와 행동(Doing)이다”(칼 바르트)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6호 2014.2.9.

2월 교회 행사 안내

1. 평신도 참여예배 - 마리아회 / 2월 16일
2. 청소년부 동계수련회 - 2월 14일 - 15일
3. 청년회 동계수련회 - 2월 21일 - 22일
4. 작정밤기도회 - 2월 24일 -28일 오후8시 / 종합교육실
5. 해든솔선교활동 - 2월 15일 오전 9시
6. 안수집사모임 - 2월 9일 오후1시 / 당회실
7. 권사회기도회 - 2월 16일 오후1시30분 / 교회 본당

직분자 임명

1월 당회에서는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새가족 가운데 직분자들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 시무권사 - 신공님 양희임
2. 집 사 - 강국환 이용훈 김용선 김영숙 이유자 김희선

*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